

 홈 >
  뉴스 >
  뉴스 >
  의료

포스텍 연구팀, 백신 주사 대신 ‘피부 흡수’ 기술 개발

2016년 02월 02일 13:12:53

김남주 기자  dw@doctorw.co.kr

포스텍(포항공과대)은 신소재공학과 한세광 교수, 김혜민 연구원 팀이 백신을 주사하지 않고 피부에 발라 흡수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2일 밝혔다.

빛을 이용한 피부투과 백신 광의약(photomedicine) 기술로 하버드 의과대 윤석현 교수, 김기수 연구원과 공동연구를 했다.

광의약은 레이저 등 빛을 이용한 치료 기술을 의약소재에 접목해 피부질환·항암치료, 성형수술, 피부과 시술 등에 활용하는 최첨단 의약 분야다.

연구팀은 피부, 근골격계, 관절, 안구 등에 존재하는 생체고분자인 히알루론산의 높은 피부 투과도에 주목했다. 히알루론산-백신 접합체를 피부에 발라 조직 내에 백신을 전달한 뒤 빛을 쬐이는 방법으로 면역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성공했다.

백신을 주사하는 대신 피부에 바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은 낮추고 환자 편의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닥터더블유(<http://www.doctorw.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